지역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급하다"

원자재값 급등 불구 대기업 눈치 살피기 급급

월급도 못 맞추고 발만 동동 … 법제화 절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라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납품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되레 떨어지는 상황이니,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광주시 하남산단내 기계제조업체 대표 K씨의 하소연이다. K대표는 "납품단가에 불만을 표시하려 해도 거래단절이라는 보복행위가 두려워 내놓고 얘기도 못한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해야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광주·전남 지역 중소업체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도 지난 19일 '납품단가 연동제·조정협의제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정책건의서를 내놓아 이같은 흐름에 불을 지폈다.

정책건의서는 '연동제가 도입돼야 중소업체들이 적절한 채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며 "현재의 조정협의 의무제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교섭력 차이와 대기업의 보복 우려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조정협의권이 협동조합에 위임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측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들이 기술·경영혁신 노력을 게을리할 우려가 높다"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있도록 조정방법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케 한 '조정협의 의무제'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연동제 법제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기업이 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19%나 되고, 중소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조정협의 의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촌공단내 A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다 납품단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2중고로 인해 생산설비 재투자, 신제품 개발은 물건너간지 오래"라며 "소비자와 대기업이 함께 부담해야 할 고통이 중소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세금체납 170여명 골프 회원권 압류

광주지방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천300만원을 내지않고 버텼다.

밀린 세금을 받으러 나선 국세청은 A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했으나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아 공매에 부쳐도 남는 게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 외에 경기도와 전북에 각각 5천100만원, 7천800만원 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냈고 곧바로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A씨는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세무서를 방문, 관련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A씨처럼 체납세금을 장기 미납하다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광주·전남지역에만 170명을 넘었다.

21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체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한 사람은 지난해 157명(209구좌)에서 올해 172명(300구좌)으로 늘었다. 1천350명(1천720구좌)에서 올해 960명(1천232구좌)으로 줄어든 전국 집계와는 대조적이다.

광주국세청은 172명의 체납자 가운데 현금징수 21명(24구좌) 1억900만원, 채권확보 45명(72구좌) 14억5천6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나머지 106명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산업 축제한마당 지난 19일 광주 첨단체육공원에서 열린 '광산업의 날' 축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관객들이 코리아 주니어 밴드의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제 4회 2008 광산업의 날' 성료

시민 등 2천여명 참석 … 체육대회·축하공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08년 광산업의 날' 행사가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일보사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외에 광산업 관계자와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10년 전 어렵게 출발한 광산업이 이제는 광주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내년 세계 최초로 광주에서 열리는 광엑스포는 우리나라를 세계 3대 광산업 국가로 견인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부 광산업체와 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에서는 52개 업체와 10개 기관이 축구·발야구·줄다리기·계주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2부는 가수 남진, 코미디언 한무씨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함께 임직원 장기자랑, 광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공로표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융 애로 상담반 개설

光銀, 中企지원 본격화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중소기업 금융 애로상담반'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이 상담반은 대출, 외환,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 애로사항 상담은 물론, 신용보증서 발급이나 신용관리 등에 대한 지원과 조언 등을 맡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위원장인 기업고객본부장(변정섭 부행장)과 반장(강정태 기업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 금융분야의 전문 컨설턴트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문의 062-239-6502.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일보- 여경협 '여성경제인 포럼'… 신성호 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장 특강

지난 19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 포럼 참석자들이 신성호 호남지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디자인 소홀한 기업, 글로벌 경쟁서 뒤진다"

디자인(Design)은 제품·서비스와 소비자를 연결해 매출상승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21세기 지식 기반산업의 핵심으로, 여성기업이나 지역기업일수록 디자인 경영을 소홀히 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지난 19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 35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신성호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 호남지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신 지원장은 이날 '디자인과 기업경영'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제조업이 2~3년의 평균 기술개발기간과 4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5배의 매출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디자인은 6~9개월 개발기간, 2천만원의 개발비로 무려 22배의 매출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디자인의 파괴력을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 규모는 지난 2005년 7조원으로 자동차산업(20조원), 평판 디스플레이(10조원)에 크게 뒤졌으나, 오는 2015년에는 25조원까지 확대돼 평판 디스플레이(7조4천억원)를 제치고 자동차산업(44조원)을 맹추격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차원의 디자인 경영 성공사례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전자의 블루블랙폰은 세계적으로 1천만대 이상 판매됐고, 현지문화를 바탕으로 감성적인 디자인을 채용한 LG전자의 휘센은 2000년부터 6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으로 디지털 오디오 플레어이 개발업체인 이자브는 디자인 혁신후 매출이 329% 증가했고, 센텍코리아의 음주측정기도 매출이 67% 신장했다.

신 지원장은 "디자인의 역사는 제품→품질→마케팅→창조성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면서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의미와 달리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디자인을 중심에 놓고 경영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강연 말미에 신 지원장은 디자인 경영의 성공요인으로 ▲CEO의 디자인 경영철학과 리더십 ▲구성원의 고객지향 마인드화 등 디자인 중심문화의 형성 ▲창의적인 디자인 조직 구축 ▲디자인에 대한 투자확대 ▲디자인 인력양성 등을 꼽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양칠성 e-편한세상' 대림, 잔여세대 분양중

대림건설은 광양시 광양읍의 '광양칠성 e-편한세상'의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이 아파트는 5개동(지상 17~20층) 423세대 규모로, 칠성초교, 광양중·고, 광양여중·고 등의 학군과 함께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특례진학이 가능하다.

남해고속도로 광양IC와 2번국도가 인접해 동광양 및 순천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여수공항까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 문화예술회관 등의 행정기관 및 문화시설이 있다. 또 서천체육공원과 서산 등산로 등의 자연환경을 갖춤으로써 친환경 청정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단지는 입주민의 동선확보를 위해 필로티 설계를 채택했고, ▲전 세대 남동 및 남서향 배치 ▲발코니 확장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문의 061-7620-114.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